

(주)한라씨에프엔

제주 양배추 농가 돕기 판촉행사 개최



(주)체리부로의 자회사이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구좌 농공단지(사장 김승완)에 위치한 닭고기 가공 업체 (주)한라씨에프엔(사장 김승완)은 양배추 판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돕기 위해 양배추 1천만원 어치를 매수했다.

현재 제주 양배추 농가는 과잉 생산과 경제불황이 겹치면서 판매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주)한라씨에프엔은 어려울 때일수록 고통을 분담하고 더 나아가서는 양질의 양배추를 어려운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자는 취지로 양배추 매수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주)한라씨에프엔 김승완 사장은 "우수한 품질의 제주도 양배추 재배 농가의 어려움을 전해 듣고, 농가에 작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던 차에 이번에 양배추를 구매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주)한라씨에프엔은 이번에 매수한 양배추를 지난 3월 5일 (주)체리부로 본사로 이송하여 본사 직원에게는 직판매장을 통해 매수 가격의 1/3인

3개에 1,500원에 공급했으며, 나머지 물량은 진천지역 사회복지 시설에 기탁했다.

(주)한국원종

고도욱 대표이사 취임



지난 3월 9일자로 (주)한국원종의 대표이사에 고도욱 전 (주)체리부로 상무가 취임했다.

고도욱 신임 대표이사는 "한국원종이 지난 2002년 관련업체들이 육용종계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고품질의 종계공급을 목표로 출범한 만큼 우수한 종계 공급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대농가 서비스 역시 강화해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메리알코리아(주)

김종영 대표이사 취임



메리알코리아(주)는 4월 1일부로 김종영 신임 사장이 대표이사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메리알코리아(주)는 1998년 6월 1일 한국지사 설립 이후 약 11년간 이성희 대표이사가 경영해 왔으며 그동안 직원 30명, 매출 150억 돌파



업·계·소·식

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신임 김종영 대표이사는 바이엘코리아 근무를 시작으로 세바 지사장과 이지바이오 고문을 역임하는 등 25년간 동물약품 업계에 몸담아 온 실력자이다.

메리알코리아(주)는 대표이사로 취임한 김종영 사장에게 메리알의 새로운 10년을 기대하고 있다.

인터베트/쉐링푸라우

서승원 대표이사 취임



인터베트/쉐링푸라우는 4월 1 일자로 서승원 대표이사가 취임 했다고 밝혔다.

다국적 동물약품 기업에 한국 사람이 대표이사를 맡게 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이는 인

터베트/쉐링푸라우에서 내부승진을 통해 한국인 지사장이 되는 첫 번째 케이스다.

신임 서승원 대표이사는 “앞으로 회사에 대한 주요 일들에 대해 직원들과 농가의 의견을 경청하여 거거서 나오는 아이디어를 취합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인터뷰II’ 90P 참조).

(주)트루라이프

국내 최초 한국양계기술 아프리카에 알려

(주)트루라이프(대표이사 정세진)가 대한민국 최



초로 아프리카 앙골라에 육계계열화사업 컨설팅을 본격화해 화제가 되고 있다.

(주)트루라이프는 지난 3월 18일 앙골라현지에서 육계계열화사업을 위한 단위별 사업부지를 확정하고 사업을 본격화했다. 종계장, 사료공장, 부화장, 도계장 등의 주요 사업부지는 관자노르테주의 루칼라시, 멜랑게주의 카쿠소시 일대에 지어진다.

육계계열화사업에 필요한 각 사업장 설계부터 모든 사업장의 공사는 2010년 8월까지 완료되며, 트루라이프는 2012년 5월까지 컨설팅을 수행한다.

이 컨설팅은 앙골라에 육계계열화사업의 기반시설 구축부터 사업운영에 대한 노하우 전수, 육계산업 전문가 양성 등 닭고기를 자체 수급할 수 있도록 하는 총체적 컨설팅이다.

계약규모는 337만달러(한화 약 34억원) 상당으로 국내외 경기불황으로 인한 소비침체로 위축되어 있는 중소기업과 국내 축산업에 희망의 메시지로 전달되고 있다.

(주)트루라이프는 이번 수주 성공을 바탕으로 축산기반이 열악한 해외시장에 축산계열화사업 진출의 거점을 마련하고, 한국형 축산경영 성공모델을 세계에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화제의 기업’ 88P 참조).



지식경영 본격 시행

(주)트루라이프·서부사료(주)가 지식경영의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는 경영과 독서를 접목하여 시너지효과를 내는 독서경영의 전사적 확대 실시 및 사내 지식기반 인프라 구축을 위한 그룹웨어를 전격 도입하는 등 현 경제 위기의 활로를 '지식경영'에서 찾고자 함이다.

먼저 팀장급 이상 직급이 참여하는 독서토론회를 주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해 최고경영자 차원에서 솔선수범하고 있다. 어려운 경영 환경을 적극적으로 극복하고자 책에서 얻은 지혜나 정보를 기업 운영에 즉시 활용하고자 하는 전략적 시도로 그 의미가 크다 하겠다.

독서토론회는 (주)트루라이프·서부사료(주) 고유의 기업문화가 그대로 투영된 오랜 전통으로 모든 임직원들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 및 업무전 문서 등 각 분야 서적을 1년에 4권 이상 읽고 독후감을 제출해야 한다. 또 매출의 1%를 직원교육비로 지출하고, 사내 도서관을 운영하는 등 업계에서 '책 읽는 회사'로 유명하다.

다독가(多讀家)로 알려진 정세진 대표이사는 "독서토론회는 그동안 지속되어 온 당사의 전통이 확대된 것으로 보면 된다"며 "책 속에서 모든 진리와 문제 해결의 열쇠를 찾을 수 있으므로 임원진 먼저 독서 경영의 장을 열어 직원들이 독서를 업무에 전략적으로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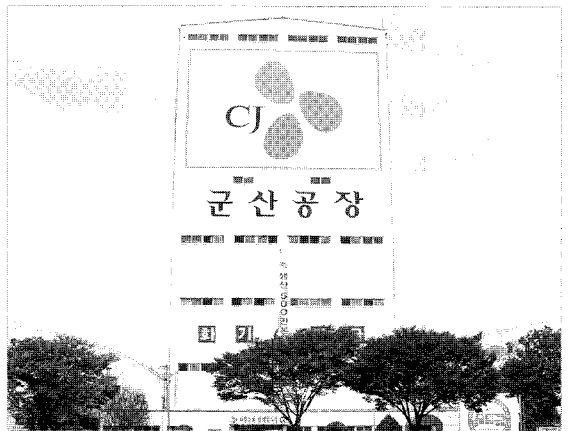
또한 지난 2월 말부터 그룹웨어를 도입, 사내 지식기반 인프라 확충에 나섰다. 그룹웨어는 사내통신, 외부메일링, 전자결재, 주소록 및 실시간

사내 메신저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통합 전자문서 시스템으로 그간 단순게시판 형태의 문서 작성만 가능했던 KMS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됐다.

앞으로도 (주)트루라이프·서부사료(주)는 기업의 핵심가치를 높이고 미래가치를 향상시켜 기업 성장을 이끈다는 지식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CJ 제일제당

군산공장 무결함 HACCP 인증 획득



CJ제일제당 사료BU 군산공장은 지난 2월 25일 농림수산식품부 HACCP 인증 심사에서 당당히 'HACCP 무결함 공장'으로 인증을 받았다.

이는 CJ Feed가 '식품에 준하는 사료를 만드는 공장'임을 국가를 통해 공식 인증을 받은 것으로 이번 인증으로 인해 CJ Feed는 회사 비전인 '글로벌 축산회사'로의 도약에 가속도가 붙을 전



업·계·소·식

망이다.

1988년 3월 준공한 CJ Feed 군산공장은 첫 해 88,640톤을 시작으로 공장 준공 20년만인 지난해 9월 사료업계에서 이례적으로 단기간내 '500만톤 생산을 돌파' 한 저력있는 공장이다.

군산공장은 최적의 가공사료 생산기반 및 양건, 양어 특수사료 생산공장 구축, 벌크 시설의 다각적 확충과 지속적 생산성 혁신을 통한 월 3만5천톤 생산 규모를 확보함으로써 2004년 이후 주간 출고제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1999년 전공정 자동화 구축, 벌크 출하 품질 인증 실명제, ISO 및 HACCP(SGS) 인증, KOSHA 인증 등 최고의 품질/안전 경쟁력을 구축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왔다('특집' 69P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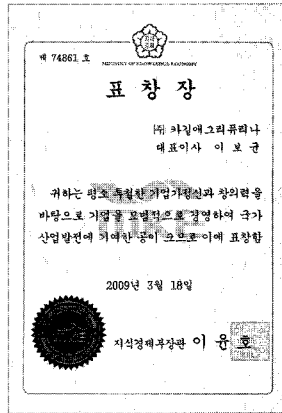
2006년에는 그 동안 땀흘려 닦아 온 조직 문화를 인정받아 노사문화우수기업으로 선정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CJ Feed의 위상을 한껏 드높인 우수한 사업장이라 할 수 있다.

(주)카길애그리퓨리나

이보균 사장, 지식경제부장관 표창 수상

(주)카길애그리퓨리나 이보균 사장은 지난 3월 1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4단체가 공동주최한 '제36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지식경제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보균 사장은 투철한 기업가 정신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기업을 모범적으로 경영하여 국가 산업



로 꾸준히 지역사회와 인류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재)카길애그리퓨리나 문화재단 장학금 전달식 가져



(재)카길애그리퓨리나 문화재단(이사장 김기용)은 지난 2월 26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소재한 본사에서 장학생 43명에 대한 '2009년 카길애그리퓨리나 문화재단 장학금 전달식' 행사를 가졌다.

카길애그리퓨리나 문화재단은 지난 1999년부터 축산 및 사료 사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축산관련 분야에 재학 중이며 장래 축산관련 분야에 종사할 인재를 학교



장의 추천으로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장학생은 고등학생 26명, 대학생 15명, 대학원생 2명으로 총 9천6백만원이 인재 양성에 쓰여진다.

김기용 이사장은 이날 격려사를 통해 “카길애그리퓨리나의 장학생으로 항상 비전을 가지고 자신을 성장시켜나가 한국 축산의 발전, 나아가 사회에 함께하는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재)카길애그리퓨리나 문화재단은 지난 1997년 설립 이래 농업분야의 유일한 문화재단으로 한국 축산의 발전을 위해 연구와 기술 활동을 지원하고, 전문 인력양성을 장려하고 있다.

의 상품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 문의 : (031)693-7674

메리스바이오

육계용 콕시듐백신 ‘리바콕스-티’ 출시



메리스바이오(대표 동희조)는 육계용 콕시듐백신 ‘리바콕스-티’를 출시하여 육계농가 및 계육생산업체의 관심을 받고 있다.

무항생제 닭고기 생산의 필수적인 단계로 고려되는 콕시듐백신의 적용은 향후 계육생산에 있어서 사육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리바콕스-티’는 사료 내에 항콕시듐제의 첨가 없이 만 3일령에 음수백신 접종 혹은 부화장에서 1일령 병아리에 분무접종으로 출하시까지 콕시듐증으로부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백신이다.

육계에 콕시듐백신을 적용시 콕시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무항생제 닭고기 생산으로 계육

교촌에프앤비(주)

세스코와 업무 협약식 체결



교촌에프앤비(주)(회장 권원강)는 지난 3월 3일 경기도 오산에 위치한 교육원에서 국내 최대 방재 회사인 세스코와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체결로 인해 전국 1천여개의 교촌치킨 가맹점은 세스코의 통합방재시스템 관리를 받아 보다 더 청결한 매장 환경을 조성하게 되었다.

교촌의 관계자는 “세스코의 통합방재시스템 관리로 인해 고객들에게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제공함은 물론 보다 더 안전한 치킨을 공급해 식품회사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최선을 다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세스코에서는 매달 1회 담당자가 교촌치킨 매장을 방문해 방재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후관리까지 책임지게 된다.